

# 일본 근대기 단군전승의 전설화 작업에 대한 비판적 검토\*

오 현 수\*\*

## 【국문초록】

일제강점기 전후 일본인 고대사 학자들은 한국사 역사왜곡의 일환으로 단군전승과 고조선사를 부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건국신화로서의 단군전승을 부정하였고, 이를 후대시기에 창작되었거나 혹은 일종의 구전된 전설을 엮어 고려시대에 기록으로 남겼다는 것이다. 우선, 일제강점기를 전후로 한 대표적인 일본인 사학자인 시라토리 쿠라키치, 미우라 히로유키, 다카하시 토오루, 오다 쇼고, 이나바 이와키치, 아오야기 난메이, 이마니시 류 등이 주장하는 단군전설론을 파악해 보았다. 이들이 말하는 단군전설은 고려시대의 승려 일연이 당시의 황당무계한 전설을 채록하여 창작했다는 것이다.

반면에 자국 일본에서 전하는 기기(記紀) 신화는 일본의 건국신화로서 당시 일왕가와 각 지역의 역사를 반영한 것으로 보았다. 기기 신화는 형성된 당시 사람들의 사상, 신념, 풍속, 습관, 정치상의 상태에 대한 기록으로 사실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건국신화는 한 국가의 성립 과정을 전하는 신화이다. 일본인 학자들은 자국의 전승에 대해서는 건국신화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그들은 20세기 전반기 신화의 유무가 문명의 척도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런데 단군전승에는 일반적인 한국 고대국가의 건국신화적 요소들이 여럿 보인다. 단군전승은 단군의 출생, 건국과 천도, 어국, 최후, 수명을 포

\* 이 논문은 홍익재단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결과임.

\*\*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

함함으로써 내용의 완결성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이야기의 배경이 국가 인가의 문제가 있고, 건국자의 개국 활동을 지원해주는 신화가 등장하며, 나라를 통치하는 형벌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한국고대의 건국신화에는 국가 개창의 주체세력이 이주민 세력이며, 주체의 핵심 인물이 하늘 혹은 신성한 곳, 좀 더 발달된 문화 환경에서 새로운 미개척지로 이동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고대국가의 건국신화의 주인공들은 신적 존재, 나라를 건국한 신성한 존재라는 점과 아울러 일반적인 한국의 초기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제사장과 통치자가 일치하는 제정사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건국신화적 요소를 띄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단군전승의 건국신화적 요소는 수없이 연구되어 온 바 있다. 이제는 단순한 학술적 차원을 넘어서 이를 국제적으로 홍보하고 보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우리만의 담론이 아니라 국제적 차원에서 건국신화로서의 단군전승이 받아들여진다면, 일본에서의 역사왜곡은 설 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 【주제어】

신화, 전설, 단군전승, 건국신화

#### ◆ 차례

1. 머리말
2. 일본인 학자들의 단군 인식과 일본 고대신화 연구
3. 건국신화로서의 단군전승
5. 맺음말

## 1. 머리말

일제강점기 전후 일본인 고대사 학자들은 한국사 역사왜곡의 일환으로 단군전승과 고조선사를 부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건국신화로서의 단군전승을 부정하였고, 이를 후대시기에 창작되었거나 혹은 구전된 전설을 엮어 고려시대에 기록으로 남겼다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진행한 대

표적인 일본인 학자들로 시라토리 쿠라키치[白鳥庫吉, 1865~1942년], 미우라 히로유키[三浦周行, 1871~1931], 다카하시 토오루[高橋亨, 1878~1967], 오다 쇼고[小田省吾, 1871~1953], 이나바 이와키치[稻葉岩吉, 1876~1940], 아오야기 난메이[靑柳南冥, 1875~1932], 이마니시 류[今西龍, 1875~1932] 등이 있다.

일본인 학자들은 대체로 단군전승을 전설로 보면서 불교문화와 관련하여 고려 시기의 승려가 만든 것이라 하였다. 이들이 내세운 주요 근거로는 단군전승에 후대적인 화소가 보인다는 점과 단군전승이 기술된 충렬왕 이전에 이에 관한 전설이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것을 들고 있다. 이들이 보기에 원나라의 간섭기 이후에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단군전승이 만들어졌고, 조선시대에 들어와 국가적 색채를 띄며 널리 유포되었다는 것이다. 일본인 학자들은 단군전승을 건국신화가 아닌 전설로 취급하면서도 도리어 자신들이 속한 일본의 고대전승에 대해서는 건국신화로서 인정하였다.

신화는 우주, 인간, 문화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로서 이를 신이나 영웅들의 활동담으로 풀어 놓은 것이다. 자신들이 속한 문명이나 국가의 조상을 영웅화하여 대대로 전승하면서 기록으로 남게 된 것이다. 신화는 아직 의식이 발달하지 않았던 씨족사회 의식의 반영으로서 점점 사회가 진보하게 되면서 끊임없이 윤색하여 구비로 전하고 최종적으로 글로 기록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sup>1)</sup>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이 고대신화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근대사회로의 전환기에 있어서 고대신화의 존재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근대화에 있어서 한 집단의 역사와 문화를 지닌 공동체라는 일관성이 있는 신화가 필요하였는데, 즉 신화는 ‘nation’이라는 개념의 필요조건이며, 신화를 통해 자신들과 이방인의 차이를 명확하게 하고자 한 것이다.<sup>2)</sup> 이

1) 김태준, 「檀君神話研究」, 『檀君神話論執』, 새문사, 1990(1935), 198쪽.

2) 北山祥子(나행주 번역), 「기기(記紀)에 의한 「일국일신화화」와 단군전승」, 『한

러한 대표적 신화가 건국신화이다. 건국신화는 한 국가의 성립 과정을 전하는 신화이다. 일본인 학자들은 자국의 건국 전승에 대해서는 신화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그들은 20세기 전반기 신화의 유무가 문명의 척도라고 여기기도 하였다.

이에 반하여 전설이란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이나 이야기이다. 민간에서 구전되어 오던 이야기로서 어떤 공동체의 내력이나 자연물의 유래, 이상한 체험 등을 소재로 한다. 신화가 신이 중심이라면 전설은 인간의 행위를 주제로 이야기한 것이다. 전설은 국가 단위 혹은 개국의 이야기가 아니고, 공간적 범위도 개인 혹은 작은 공동체에 국한된다. 신화가 자신의 공동 조상을 신격화하여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이라면, 전설은 그저 민간에서 전래되어오던 재미있는 민담과 같은 것이다.

일본인들은 근대화 과정을 겪으면서 서구 유럽의 신화론을 많이 참조한 듯하다. 천황제를 지향하면서 역사만들기의 일환으로 일본의 건국신화 만들기 작업이 시도되었다. 일본의 역사는 서양과 마찬가지로 보편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 면에서 건국신화적 관점에서 기기(記紀)신화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었다. 그런 반면에 조선의 식민지화와 맞물려 일선 동조론의 일환으로 한국 역사를 일본 역사의 하위 항목으로 편입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작업들을 진행하게 된다. 한국 역사의 유구성을 약화시키는 방법으로 단군전승의 전설화 작업이 진행되었던 것이다.

일본인학자들이 고조선의 건국신화인 단군전승을 확일적으로 전설로 보았던 것은 당시의 조선총독부의 정책적 후원을 토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여러 학자들이 구로이타 가쓰미같은 특정 리더의 지휘 하에 체계적으로 단군전승의 전설화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정책 과정에서 일본인 학자들이 단군전승과 고조선을 전설로 만들었던 구체적 논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일본

인 학자들의 단군전승에 대한 연구와 일본의 고대 건국신화에 대한 연구의 차이점을 살펴본 후 단군전승이 가진 건국신화로서의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 2. 일본인 학자들의 단군 인식과 일본 고대신화 연구

### 1) 단군 인식 연구

『삼국유사』에 단군전승이 기재된 이후 조선시대를 거쳐 한말에 이르기까지 단군전승은 고조선사의 일환으로 다루어져 왔다. 그렇지만 근대기 이후와 일제강점기의 일본인 학자들은 단군전승을 격화시키는 작업들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시라토리 구라키치는 「단군고」(1894)<sup>3)</sup>를 통해 단군전승을 단군전설로 보면서 불교문화와 관련하여 승려가 만든 것이라 하였다. 그는 불교 경전의 우두전단(牛頭旃檀)에서 단목(檀木)이란 명칭이 나왔으며, 창작 시기는 고구려에 불교가 전래되어 국력이 절정에 이르렀던 장수왕대라고 주장하였다.<sup>4)</sup>

이글에서는 평양의 옛 이름인 왕험(王險)에서 따온 왕검(王儉)을 단군의 휘(諱)로 하여 평양에 도움을 정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왕험성은 조선이 한(漢)나라의 영역이 되기 전의 명칭이라 보았던 것이다. 이후 평양은 장수왕대에 이르러 도움을 이곳으로 옮기면서 역대의 왕도가 되

3) 白鳥庫吉(조경철 번역), 「단군고(檀君考)」, 『일본인들의 단군 연구』, 민속원, 2009, 9~32쪽.

4) 그렇지만 『三國遺事』에서 단군은 ‘檀君’이 아니라 ‘壇君’이라고 기록했으며, ‘우두’라는 명칭은 이미 불교 전래 이전부터 확인된다(조원진,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의 고조선 기원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고대사탐구』 40,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21).

있기 때문에 단군이 평양에 도읍하였다는 인식은 장수왕의 평양 천도 이후에 생겼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장수왕대에 해당하는 중국 위나라에서는 불법이 가장 왕성한 시기였는데, 고구려와 위나라의 활발한 교류 속에서 단군전설이 만들어졌다고 보았다.

같은 해에 발표한 「조선의 고전설고」에서도 단군전설은 중국 사서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sup>5)</sup> 단군의 실재성을 부정하고 후대에 창안되었다고 보았다.<sup>6)</sup> 이 글에서도 단군전승을 전설로 보면서 불법이 동쪽에 전해진 후 승려가 날조한 것으로 보았다.<sup>7)</sup>

그리고 미우라 히로유키<sup>8)</sup>는 단군전승을 단군전설로 규정하였고, 전설에 괴이함이 많은 것은 동서의 여러 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라고 하였다. 그는 『삼국사기』에서 "平壤者 本仙人王儉之宅也 或云 王之都王儉"이라 한 것이 확대되어 단군전설이 되었다고 믿었다. 이 전설이 발생한 유래와 사정을 생각할 때 원시적, 원초적 신화적 형태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한국의 고대 사회는 분할되어 있었는데, 단군전설은 통일적 형태의 신화로 표현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다카하시 토오루<sup>9)</sup>는 조선시대의 성리학적 기반을 둔 『동국통감』류에 기술된 단군전승에 관심을 보였다. 이 책에서는 『삼국유사』에서 보여 주었던 환인과 환웅 및 웅녀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신인(神人)이 강림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이에 토오루는 원래의 단군전승은 신인이 묘향산 단목 아래로 강림하였고, 그가 신덕(神德)이 있어서 민중들이 군장으로 웅립하는 형식의 극히 간단한 형태였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후 순차적으로 원 전설이 형태가 바뀌었다고 보았다.

5) 윤승준, 「육당 최남선의 '단군론' 연구」, 『인문학연구』 37, 2009, 294~301쪽.

6) 白鳥庫吉, 「朝鮮の古傳説考」, 『史學雜誌』 5編 12號, 1894(1970, 『白鳥庫吉全集』 3(朝鮮史研究), 岩波書店, 15~17쪽).

7) 白鳥庫吉, 위의 논문, 1894.

8) 三浦周行, 「朝鮮の開國傳説」, 『歴史と地理』, 史學地理學同攷會, 1918.

9) 高橋亨, 「檀君傳説に就きて」, 『同源』 同源社(京城), 1920.

환인이 단군전설에 포함된 것은 불교가 전래되어 백성 모두가 이것을 믿게 된 이후에 구성된 부분이라 하였다. 그리고 단군전설은 고려 충렬왕 무렵부터 조선 국초에 이르는 사이에 더욱 확대되었다고 여겼다. 그리하여 하백(河伯)의 딸을 아내로 맞는다는 이하의 이야기는 고려 말에 부가되었다고 보았다. 이후 한국인들은 단군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고, 이러한 지식과 신념을 근거로 해서 단군교를 세웠다는 것이다.

그리고 오다 쇼고<sup>10)</sup>는 단군전설이 묘향산 산신과 평양선인(平壤仙人)의 전설이 합해져서 만들어진 평양의 개벽 전설이라고 평하였다. 그는 단군조선을 최초로 언급한 『삼국유사』는 불교계의 승려가 날조한 것이고, 단군전설은 고려가 원나라에 굴복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만들어져 『삼국유사』에 등장했다고 하였다. 이러한 단군전설은 조선시대에 들어와 국가적 색채를 질게 띠면서 퍼져나갔다고 보았다.

이나와 이와키치<sup>11)</sup>도 단군전승을 전설이라고 하였다. 새롭게 민족적 신앙이라는 욕구의 측면에서 단군전설이 나왔다고 하였다. 그리고 단군전설은 신라 말기에 한 스님의 손에 의해 나온 것이고, 이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보충된 것으로 보았다.

아오야기 난페이<sup>12)</sup>는 일본 역사는 일본 신화를 출발점으로 발전하였다고 보았다. 일본을 창조한 여러 신들의 신대사(神代史)는 오래되었기에 선사 이전의 역사는 이것을 신화로 할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단군전승은 고려 충렬왕 때로 일연이 저술한 『삼국유사』가 처음 이야기한 것으로, 막연하다고 하면서 전설로 취급하였다.

그에 의하면, 환인은 신 이자나기(伊弉諾)의 약자, 환웅은 신 스사노오

10) 小田省吾, 「謂ゆる檀君傳説に就て」 『文教の朝鮮』, 朝鮮教育會, 1926(미간행, 「소위 단군전설에 대하여」 『일본인의 단군연구』, 흥익재단).

11) 稻葉岩吉, 「朝鮮の文化問題」, 『支那社會史研究』, 大鐙閣(東京), 1922.

12) 靑柳南冥, 「檀君神話」 『朝鮮史話と史蹟』, 京城: 朝鮮研究會, 1927(미간행, 「단군전승」, 『일본인의 단군연구』, 흥익재단).

(須左之男)의 약자, 신시재세리(神市在世理)의 시재(市在)는 수좌(須佐)로서 스사노오, 단군은 태기(太祈)로서 스사노오노 미코토(素盞鳴尊)의 아들 이타케루노 미코토(五十猛命)라고 하였다. 스사노오노 미코토는 처음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아래에 있었고, 후에 소시모리(曾尸茂梨)의 땅으로 옮겨서 조선왕국을 열었으며, 그 아들 이타케루신의 치세에 완전한 군주권을 가진 단군이 된 것으로 가정하기도 하였다. 종합하면 조선, 요동, 일본열도는 모두 일본 신족(神族)의 정치 아래 굴복했던 곳이라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마니시 류는 1929년에 출간한 『청구설총(靑丘說叢)』에 게재한 「단군고」에서 단군에 관한 기본적 입장을 밝혔다.<sup>13)</sup> 그는 이 글에서 단군전승에 대해 유교와 도교에 의해 윤색된 것으로, 단군이라는 존재는 평양 지역에서 신앙되던 선인(仙人)이라고 평하였다.

그리고 그는 1934년에 발행된 「상고-원시시대 및 개국전설」이라는 글에서 다시 한번 단군과 고조선사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sup>14)</sup> 여기에서는 평양의 수호신으로 숭배하던 왕검선인(王儉仙人)을 두고서 고려 고종 때에 단군이라고 이름짓고 고조선을 개국한 인물로 여겼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일본인 학자들의 단군전승에 대한 견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일본인 학자들의 단군전승 연구 현황

구 분	학력 및 경력	저 서	단군전승	특 징
시라토리 구라키치	제국대학 사학과 졸업 도쿄제국대학 사학과 교수	「檀君考」 「朝鮮の古傳説考」	단군전설로 규정 고구려 장수왕대 승려가 창작	이마니시 류 등에 영향
미우라 히로유키	도쿄제국대학 국사과 졸업 교토제국대학 문과대 교수	「朝鮮の開國傳説」,	현재의 단군전설은 완성적, 혹은 통일적임	고문서와 고기록 연구

13) 이근우, 「今西龍의 단군전승 연구와 神話素」, 『한일관계사연구』 74, 한일관계사학회, 2021.

14) 今西龍, 『朝鮮史の槩』, 京城: 近澤書店(미간행), 「상고-원시시대 및 개국전설」 『일본인의 단군연구』, 흥익재단, 1934.

다카하시 토오루	도쿄제국대 중국철학과 졸업 경성제국대학 교수 조선학회 창립 부회장	「檀君傳説に就きて」	초기 형태는 신인(神人)이 강림하여 웅립하는 형식. 이후 여러 차례 첨가	조선어와 사상 연구
오다 쇼고	도쿄제국대학 사학과 졸업 대한제국 학부 서기관 경성제국대학 예과 부장	「謂ゆる檀君傳説に就て」	단군전설은 묘향산 산신과 평양선인(平壤仙人)의 합본. 불교계의 승려가 날조한 것	대표적인 단군부정론자
이나바 이와키치		「朝鮮の文化問題」	신라 말기 스님이 창작함 이후 여러 차례 보충	
아오야나기 난메이	히토쓰바시 중국어 전공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회 수서관	「檀君神話」	단군전승을 일본 기기(記紀) 신화와 연계	동양사학자 만선사관의 주장자
이마니시 류	도쿄제국대학 사학과 졸업 경성제국대학 교수 조선사학 강의	「檀君考」 「上古一原始時代及び開國傳説」	단군은 평양 지역에서 신앙되던 선인(仙人) 유교와 도교에 의해 윤색	일본 최초 한국사 박사

## 2) 일본 고대의 신화 연구

일본의 건국과 관련된 전승은 『고사기(古事記)』와 『일본서기(日本書紀)』에 실려 있다. 두 책은 일본 왕가가 일본을 통치하게 된 유래를 설명하는 형식을 띠고 있다. 역대 일본에서는 두 사서에 기술된 일본 고대의 전승을 기기(記紀)신화라고 하면서 신대사(神代史)로 취급하여 왔다. 전통적인 입장에서 신대사의 신화에 대해서는 기타바타케 치카후사(北畠親房), 이치조 가네라(一條兼良), 야마사키(山崎闇齋),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 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宣長) 등의 견해를 들 수 있다.

이들은 불교나 유교의 교의와 학설로 일본 신화를 해석하려고 하였다. 이들에 있어서 신화란 비유와 우언을 통해서 나타낸 상대(上代)의 역사이므로 인간에 의한 사건으로 해석하고자 하였으며, 신화는 초인간적 신들의 불가사의한 행위를 기록한 것이므로 문자 그대로 신용하자는 입장을 취했다는 평가이다.<sup>15)</sup>

이러한 전통적인 신대사에 대한 견해는 근대 일본사 연구자들에게

15) 이근우, 앞의 논문, 2022, 216~217쪽.

지 영향을 미친다. 신대사 연구는 일본 근대 역사학의 원류라고 일컬어지는 시게노 야스쓰구(重野安繹), 구메 구니타케(久米邦武), 호시노 히사시(星野恒), 나카 미치요(那珂通世) 등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들은 ‘신화’를 국가의 생성 궤적이자 정사(正史)의 기원이라는 정통성을 내세우는 논리로 설정하였다.<sup>16)</sup>

이후에 아오야기 난메이<sup>17)</sup>는 일본 역사는 일본 신화를 출발점으로 발전하였다고 보았다. 일본을 창조한 여러 신들의 신대사는 오래되었기에 선사 이전의 역사는 이것을 신화로 할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스사노오노 미코토는 처음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아래에 있었고, 후에 소시모리(曾戸茂梨)의 땅으로 옮겨서 조선왕국을 열고, 그 아들 이타케루신의 치세에 완전한 군주권을 가진 단군이 된 것으로 가정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시라토리 쿠라키치는 기기(記紀)의 기록은 이 이야기가 형성된 당시 사람들의 사상, 신념, 풍속, 습관, 정치적인 상태에 대한 기록으로 보면 사실일 수 있다고 하였다.<sup>18)</sup> 일본신화는 일본내 각 지역 간의 결합 혹은 통합, 이를 상징하는 천신과 국신의 혈연적 결합의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sup>19)</sup> 이는 결국 천황가가 국토를 지배하는 정당성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정치세력 및 그들이 모시는 신도 천황가의 국토 지배에 동참하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각 지역의 지배자와 그 지역의 토착신은 그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가 생성된 당시의 사람들의 사상, 신념, 풍속, 습관 정치상의 상태에 대한 기록으로 보면 사실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거기에 역사

16) 이근우, 앞의 논문, 2022, 211쪽.

17) 靑柳南冥, 앞의 논문, 1927.

18) 白鳥庫吉, 「神代史の新研究」, 『白鳥庫吉全集』 1권, 1969, 547~548쪽.

19) 이근우, 「白鳥庫吉의 일본신화와 단군전승 이해에 대하여」, 『한국고대사탐구』 40,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22, 216쪽

상의 사실이 내재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았다.<sup>20)</sup> 그러면서 시라토리 쿠라키치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신화와 자료를 동원하여 일본의 신화를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일본의 신화도 일반적인 신화의 형태라는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다.<sup>21)</sup>

이상으로 살펴보았듯이 일본인 학자들은 일본의 신화에 대해서는 역사적 사실을 반영한 건국신화적인 것으로 보거나,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당시 사람들의 신념과 풍속 등에 대한 역사적 사실이 내재해 있는 기록으로 보았다. 그런 반면에 한국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의 건국신화인 단군전승에 대해서는 이를 건국신화로 보지 않고, 후세에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전설로 취급하였다.

그렇다면 이들이 한국의 단군전승을 일본의 신화와 달리 전설로 취급한 근거들은 무엇인지, 그러한 근거들이 타당한지 비판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단군전승이 건국신화로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인지 아울러 살펴보고자 한다.

### 3. 건국신화로서의 단군전승

#### 1) 단군전승의 전설화 작업에 대한 비판

일본인 학자들의 단군전설론의 근거로는 단군전승에 불교적 윤색과 더불어 『삼국유사』 이전에 단군전승을 기록한 문헌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삼국유사』에 기술된 단군전승에는 불교적 윤색이 가미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삼국유사』에서 기술하고 있는 단군전승에는

---

20) 白鳥庫吉, 앞의 논문, 1969, 547~548쪽.

21) 이근우, 앞의 논문, 2022, 220쪽.

불교적 성격 외에도, 도교의 영향, 유교와의 관련성, 산악신앙과 같은 토속신앙 등의 영향도 함께 고려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불교적 성격도 『삼국유사』의 기록자가 일연이라는 승려였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오히려 건국신화로 인정하는 기기신화도 불교적 운색 과정이 들어 있다고 일본인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다.<sup>22)</sup> 즉 일본 근대기 일본인 연구자의 ‘승려에 의한 왜곡’이라는 단군전승에 대한 비판은 그대로 기기신화에 대한 비판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sup>23)</sup>

그리고 조선시대에 『동국통감』 등에서 단군이 하강하여 나라사람들이 임금으로 추대한 이야기를 주목하면서 이전 시기에 불교 승려 일연이 작성한 단군전승을 비판한다. 그런데 조선시대는 성리학의 나라였다. 그래서 『삼국유사』에 나온 기이한 단군 이야기는 거부될 수밖에 없었고, 이를 좀 더 합리적으로 해석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리하여 고려시대에 전래된 단군 이야기에서 태백산으로 강림한 주체를 환웅이 아닌, 단군으로 보는 견해를 취하게 된다. 그리고 단군 하강 이야기에서 곰이 웅녀가 된 부분은 황당무계한 이야기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환웅과 웅녀의 결합은 자연스럽게 삭제된다.

단군하강설이 처음 등장한 것은 세종 1445년에 정인지(1396~1478) 등이 편찬한 「용비어천가」에서부터이다.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는 해동의 육룡(六龍)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뜻이다. 이 문장은 조선 왕조 창업의 정당성을 제시하면서 왕업의 영원한 지속을 기리기 위해 후대의 왕에게 훈시를 하는 내용을 위주로 하고 있다. 왕조 창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용비어천가」에 기술된 단군전승은 이에 대한 조선왕조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용비어천가」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주체를 환웅이 아닌, 단군으로 보았다. 즉, 신인(神人)이 박달나무 아래에 내려왔는데, 나라 사람들이

22) 泉谷康夫, 『記紀神話伝承の研究』, 吉川弘文館, 2003, 1~2쪽.

23) 北山祥子, 앞의 논문, 2022, 237쪽.

그를 임금으로 추대했으며, 이가 곧 단군이라는 이야기 구조이다. 고려 시대에 불교적 색채를 띠고 있던 단군전승은 유학의 시대인 조선에 들어와서는 환인이라는 존재나, 환웅이 내려왔다는 이야기, 곰이 인간이 되는 이야기, 그리고 환웅이 웅녀와 결혼하여 단군을 낳았다는 이야기 등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러한 내용들을 모두 삭제하고 단군이 박달나무 아래에 내려왔고, 왕으로서의 위엄이 있는 그를 나라 사람들이 임금으로 모신 것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이후의 일이긴 하지만, ‘단군이 신성한 사람[神人]으로서 내려왔다’는 것도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실제의 물리적 과정이 아니라, 신성한 존재인 단군이 태어났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견해가 도출되면서 좀 더 합리성을 가지게 되었다. 『삼국유사』에서 말하는 단군전승에 대해서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이를 합리화 과정을 통하여 보려고 했던 것이다. 이것은 당시의 인식론적인 것이었고, 일본인 학자들의 주장처럼 고려 이전의 단군전승을 부정할 만한 것은 되지 못한다.

한편, 단군전승이 『삼국유사』의 저술 이전에 존재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한국학계에서는 신화학, 고고학, 문헌학 방면에서의 여러 연구를 통해 돌파구를 찾곤 하였다.<sup>24)</sup> 조수(獸祖) 신화, 곰 신화 및 알타이계의 신화적 요소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신석기 ~ 청동기 시대적 요소가 들어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고구려 고분벽화에도 단군전승의 일면 모습을 알려주는 그림들이 그려져 있다는 측면에서 최소한 고구려 시기에 단군전승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각저총(角觝塚)과 장천(長川) 1호분 등에 대한 고문화 혹은 고고학 방면에서의 연구를 통해서도 삼국시대에 이미 단군전승에 대한 이해가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삼국지』

24) 오현수, 「일제강점기 단군부정론과 고조선 영역축소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오다 쇼고와 이마니시 류를 중심으로-」, 『선사와 고대』 69, 한국고대학회, 2022.

「위서」〈동이전〉에 동예에 제천(祭天)과 제호(祭虎)라는 두 가지 형태의 제사가 나오기도 한다.<sup>25)</sup> 이처럼 일본인 학자들의 견해는 현재 많은 비판적 연구들에 의해 반박되고 있다.

## 2) 단군전승의 건국신화적 요소

『삼국유사』에서 전하는 단군전승이 보편적 논리에 부합한다면, 이는 곧 고대로부터 전승되어 오던 것을 일연이 기록으로 남겼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sup>26)</sup> 그렇다면 이하에서는 단군전승에는 어떠한 보편적 논리에 따른 건국신화적 요소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고기』의 고조선 건국신화는 단군의 출생, 건국과 천도, 어국, 최후, 수명을 포함하는 일련의 이야기가 완결성을 갖추고 있다.<sup>27)</sup> 일반적으로 건국신화에서 시조의 출생부터 최후까지의 여러 내용들은 신성함을 증명하기 위한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다. 단군전승을 부정하였던 시라토리 쿠라키치 또한 신화를 가문의 시조, 나라의 건국자, 건국자의 조상에 대한 설명방식으로 보았다<sup>28)</sup>는 점에서 오히려 그에 견해를 반박할 수 있는 논리로 작용가능하다.

고조선의 건국신화도 한국의 고대 신화처럼 인물의 출생과 성장, 그리고 혼인과 즉위를 거쳐 죽음에 이르는 일반적 과정을 보여주는데, 이

25) 『三國志』, 「魏志」, 〈東夷傳〉, “無大君長, 自漢已來, 其官有侯邑君三老, 統主下戶. 其耆老舊自謂與句麗同種. … 言語法俗大抵與句麗同, 衣服有異. 男女衣皆著曲領, 男子擊銀花廣數寸以爲飾. … 漢末更屬句麗 其俗重山川, 山川各有部分, 不得妄相涉入. … 常用十月節祭天, 晝夜飲酒歌舞, 名之爲舞天, 又祭虎以爲神.”

26) 박수미, 「고조선과 고구려 건국신화의 구조주의적 분석」, 『국학연구』 제18집, 한국국학진흥원, 2011, 402쪽.

27) 김성환, 「고조선 건국신화의 계승과 고조선 인식」, 『동북아역사논총』 47호, 동북아역사재단, 2015, 19~20쪽

28) 白鳥庫吉, 앞의 논문, 1969, 197~198쪽.

런 것은 건국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한 장치라고 한다.<sup>29)</sup> 그러하기에 단군전승은 단순한 전설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나라를 개창한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보인다. 이러한 점은 단군전승이 보편적 건국신화의 예를 따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단군전승에는 단군이 개국하기 이전이기는 하지만, 환웅 시기에 여러 관리들과 신하 및 형벌의 존재가 드러난다. 전체 업무를 360여 가지로 나누었다는 점에서 각 업무에 맞는 규정들이 제정되어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그리고 단군전승에는 조상이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서술되어 있는데, 이는 모두 문화가 더 발달된 곳에서 이주하여 정착한 사람들이 그 이전의 땅을 ‘하늘’로 상정하여 신비화하였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sup>30)</sup> 지배집단의 기원을 외부에서 찾는 이른바 외래왕 전설은 왕권을 정통화하고, 현실 속 왕권의 영속과 번영을 기원하면서 창작된 것으로도 해석된다.<sup>31)</sup> 그리고 고대국가의 건국신화의 주인공들은 신적 존재, 나라를 건국한 신성한 존재인데, 단군전승을 북·동부여 건국신화와 비교해서 보면, 상제·천제라는 하늘과 직접 연결된 구조를 가진다. 해모수가 지상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환웅을 연상할 수 있고, 하백녀를 얻은 곳이 태백산이었고, 고구려의 주몽을 잉태한 곳과 관련된 장소는 웅신산(熊神山, 熊心山)·웅심연(熊心淵)으로서 고구려 건국신화와도 맥이 닿는다.<sup>32)</sup>

또 다른 요소로는 일반적인 한국의 초기 국가들은 제사장과 통치자가 일치하는 제정일치사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신라 초기 통치자의 명칭인 차차웅은 주술적인 뜻을 가진 칭호로

29) 김성환, 위의 논문, 2015, 35쪽.

30) 임태홍, 「한국 고대 건국신화의 구조적 특징-중국과 일본의 신화를 통해서 본-」, 『동양 철학연구』 제52집, 동양철학연구회, 2007, 147쪽.

31) 李成市(이병호·김은진 번역), 『고대 동아시아의 민족과 국가』, 삼인, 2022, 120~124쪽.

32) 김성환, 위의 논문, 2015, 16쪽.

서 초기단계에서 신정일치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단군신화 속의 단군은 종교적 제사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왕검은 통치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고대 사회에서는 종교와 통치가 일치하는 제정일치 사회의 모습을 띠었다. 아직 통치권과 제사권이 미분화된 초기 사회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단군전승의 건국신화적 요소는 수없이 연구되어 왔다. 이제는 단순한 학술적 차원을 넘어서 이를 국제적으로 홍보하고 보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만의 담론이 아니라 국제적 차원에서 건국신화로서의 단군전승이 받아들여진다면, 일본에서의 역사왜곡은 설 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 5. 맺음말

이상을 통해 근대 시기 및 일제강점기의 대표적인 사학자였던 시라토리 쿠라키치, 미우라 히로유키, 다카하시 토오루, 오다 쇼고, 이나바 이와키치, 아오야기 난메이, 이마니시 류 등이 주장하는 단군전설론을 파악해 보았다. 이들이 말하는 단군전설은 고려시대의 승려 일연이 당시의 황당무계한 전설을 채록하여 창작했다는 것이다.

반면에 자국 일본에서 전하는 기기(記紀) 신화는 일본의 건국신화로서 당시 일왕가와 각 지역의 역사를 반영한 것으로 보았다. 기기 신화는 형성된 당시 사람들의 사상, 신념, 풍속, 습관, 정치상의 상태에 대한 기록으로 보면 사실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건국신화는 한 국가의 성립 과정을 전하는 신화이다. 일본인 학자들은 자국의 전승에 대해서는 건국신화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그들은 20세기 전반기 신화의 유무가 문명의 척도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 학자들은 단군전승을 신화로 인정할 수가 없었

고, 이를 전설로 다루었다. 전설은 오래전부터 전하여 내려오는 말이나 이야기이다. 일본인 학자들은 단군전승에 후대적인 화소가 보인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였으며, 단군전승은 고조선 당시의 것이 아니라 후대에 날조된 것이라며 전설로 취급하였다. 그렇지만 신화는 원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것이기에 구전 과정에서 변색 혹은 첨가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단군전승에는 일반적인 한국 고대국가의 건국신화적 요소들이 여럿 보인다. 단군전승은 단군의 출생, 건국과 천도, 어국, 최후, 수명을 포함함으로써 내용의 완결성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이야기의 배경이 국가 인가의 문제가 있고, 건국자의 개국 활동을 지원해주는 신화가 등장하며, 나라를 통치하는 규칙이 만들어진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한국고대의 건국신화에는 국가 개창의 주체세력이 이주민 세력이며, 주체의 핵심 인물이 하늘 혹은 신성한 곳에서 좀 더 발달된 문화 환경에서 새로운 미개척지로 이동해가는 모습들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고대국가의 건국신화의 주인공들은 신적 존재, 나라를 건국한 신성한 존재라는 점과 아울러 마지막 요소로 단군전승에는 일반적인 한국의 초기 국가들은 제사장과 통치자가 일치하는 제정일치 사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들을 들 수 있다.

단군전승의 건국신화적 요소는 수없이 연구되어 온 바 있다. 이제는 단순한 학술적 차원을 넘어서 이를 국제적으로 홍보하고 보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만의 담론이 아니라 국제적 차원에서 건국신화로서의 단군전승이 받아들여진다면, 일본에서의 역사왜곡은 설 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1. 원문

『三國遺事』, 『三國志』, 『日本書紀』, 『古事記』

### 2. 국내 논문

김성환, 「고조선 건국신화의 계승과 고조선 인식」, 『동북아역사논총』 47호, 동북아역사재단, 2015.

김태준, 「檀君神話研究」, 『檀君神話論執』, 새문사, 1990(1935).

박수미, 「고조선과 고구려 건국신화의 구조주의적 분석」, 『국학연구』 제18집, 한국국학진흥원, 2011.

오현수, 「일제강점기 단군부정론과 고조선 영역축소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오다 쇼고와 이마니시 류를 중심으로—」, 『선사와 고대』 69, 한국고대학회, 2022.

윤승준, 「육당 최남선의 ‘단군론’ 연구」, 『인문학연구』 37, 2009.

이근우, 「今西龍의 단군전승 연구와 神話素」, 『한일관계사연구』 74, 한일관계사학회, 2021.

이근우, 「白鳥庫吉의 일본신화와 단군전승 이해에 대하여」, 『한국고대사탐구』 40,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22.

임태홍, 「한국 고대 건국신화의 구조적 특징—중국과 일본의 신화를 통해서 본—」, 『동양 철학연구』 제52집, 동양철학연구회, 2007.

조원진,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의 고조선 기원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고대사탐구』 40,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21.

### 3. 외국 논문

高橋亨, 「檀君傳説に就きて」, 『同源』 同源社(京城), 1920.

今西龍, 『朝鮮史の槩』, 京城: 近澤書店, 1934(미간행, 「상고—원시시대 및 개국전설」 『일본인의 단군연구』, 흥익재단).

稻葉岩吉, 「朝鮮の文化問題」, 『支那社會史研究』, 大鐙閣(東京, 1922).

白鳥庫吉(조경철 번역), 「단군고(檀君考)」, 『일본인들의 단군 연구』, 민속원, 2009.  
白鳥庫吉, 「朝鮮の古傳説考」, 『史學雜誌』 5編 12號(1970『白鳥庫吉 全集』 3(朝鮮史研究), 岩波書店, 1894.

白鳥庫吉, 「神代史の新研究」, 『白鳥庫吉全集』 1권, 1969.

北山祥子(나행주 번역), 「기기(記紀)에 의한 「일국일신화화」와 단군전승」, 『한일관계사연구』 77, 한일관계사학회, 2022.

泉谷康夫, 『記紀神話伝承の研究』, 吉川弘文館, 2003.

三浦周行, 「朝鮮の開國傳説」, 『歴史と地理』, 史學地理學同攷會, 1918.

小田省吾, 「謂ゆる檀君傳説に就て」 『文教の朝鮮』, 朝鮮教育會, 1926(미간행, 「소위 단군전설에 대하여」 『일본인의 단군연구』, 흥익재단).

李成市(이병호·김은진 번역), 『고대 동아시아의 민족과 국가』, 삼인, 2022.

靑柳南冥, 「檀君神話」 『朝鮮史話と史蹟』, 京城: 朝鮮研究會, 1927(미간행, 「단군전승」, 『일본인의 단군연구』, 흥익재단).

【ABSTRACT】

## A Critical Review of the Legendary Work of Dangun Tradition in the Modern Period of Japan

Oh, Hyun-su

Before and after Japanese colonial era, Japanese ancient historians worked to deny Dangun Jeonseung and Gojoseon history as part of the distortion of Korean history. It denied the transmission of Dangun as a founding myth, and it was recorded in the Goryeo Dynasty by weaving a kind of oral tradition or created in the later period. We have identified the theory of Dangun legend claimed by representative Japanese historians around Japanese colonial era, Kurakichi Shiratori, Hiroyuki Miura, Toru Takahashi, Shogo Oda, Iwakichi Inaba, Nanmei Aoyagi, and Ryu Imanishi. The Dangun legend they say was created by Ilyeon, a monk of the Goryeo Dynasty, by recording the absurd legend of the time.

On the other hand, the myth of Qi, which was conveyed in Japan, was considered to reflect the history of the Japanese royal family and each region at the time as a founding myth of Japan. The device myth was believed to be true in terms of records of people's thoughts, beliefs, customs, habits, and political conditions at the time of formation. The founding myth is a myth that conveys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country. Japanese scholars used the expression "the founding myth" for their country's transmission, because they considered the existence of

myths in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to be a measure of civilization.

In Dangunjeon, several elements of the founding myth of the general ancient Korean state are seen. Dangun Jeonseung has the completeness of the content by including Dangun's birth, founding and Cheondo, fishing country, last, and lifespan. In addition, there is a question of whether the background of the story is a state, a servant who supports the founder's founding activities appears, and the punishment for governing the country is created. In addition, the founding myth of ancient Korea shows that the main force of national reform is the force of migrants, and the key figure of the main force is moving from the sky or sacred place to a new unexplored place in a more developed cultural environment. Next, the main characters of the founding myth of the ancient state are divine beings and the divine beings who founded the country, and as the last element, the early countries of Korea, which are common in Dangunjeon, show the appearance of an established society in which priests and rulers coincide.

The founding mythological elements of Dangun Jeonseung have been studied numerous times. Now, I think it is necessary to promote and distribute it internationally beyond just academic level. If Dangun's victory as a founding myth is accepted at the international level, not just our own discourse, historical distortion in Japan will lose its place.

**【Key words】**

myth, legend, Dangun myth, founding myth

